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2010 구리건원학술대회

세계유산 동구릉의 보존과 활용

2010. 9. 9. 목
구리 토평도서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2010 구리건원학술대회

세계유산 동구릉의 보존과 활용

목 차

행사일정 / 3

세계유산 동구릉의 가치와 보존·복원 방향 / 7

이창환 상지영서대 조경학과 교수, 이코모스한국위원회 회원

관광자원으로서의 동구릉 활용 방안 / 17

김길중 경기관광공사 관광마케팅 본부장

세계유산 등재 전과 후 : 수원 화성의 사례 / 23

김준혁 수원화성박물관 학예팀장

세계유산 보존·활용과 지역사회의 역할 : 외국의 사례 / 45

허 권 유네스코 평화센터 원장, 이코모스한국위원회 부위원장

행사일정

식전행사 동구릉 사진전 “김응주옹의 동구릉 사랑”

14:40-14:55 진행 윤승민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작가 소개 및 인사말 이병탁 김응주

학술대회 “세계유산 동구릉의 보존과 활용”

15:00-15:20 사회 김성우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코모스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김문경 구리문화원장
축사 박영순 구리시장
축사 박석운 구리시의회 의장

15:20-15:40 세계유산 동구릉의 가치와 보존·복원 방향
이창환 상지영서대 조경학과 교수, 이코모스한국위원회 회원

15:40-16:00 관광자원으로서의 동구릉 활용 방안
김길종 경기관광공사 관광마케팅 본부장

16:00-16:10 휴식

16:10-16:30 세계유산 등재 전과 후 : 수원 화성의 사례
김준혁 수원화성박물관 학예팀장

16:30-16:50 세계유산 보존·활용과 지역사회의 역할 : 외국의 사례
허 권 유네스코 평화센터 원장, 이코모스한국위원회 부위원장

16:50-17:00 휴식

17:00-17:30 종합토론 이왕기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
박명섭 구리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장
이기만 한국향토사 전국협의회 전문위원, 역사만들기 대표

17:30 폐회

사진전 “김응주옹의 동구릉 사랑”은 2010.9.9(목)~9.16(목)까지 계속됩니다.

개 회 사

구리문화원 원장 김 문 경

올해는 동구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지 1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오늘은 동구릉의 역사와 문화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영순 구리시장님과 박석운 구리시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문화유산이 된 동구릉의 가치와 보존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광객으로써의 활용방안,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세계유산 운영 사례를 비교해 보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금일 학술대회는 학생들의 역사교육은 물론 학부모님과 구리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술행사와 더불어 진행되는 사진전은 사진촬영을 천직으로 알고 일생을 작품 활동에 매진해 오신 김응주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동구릉의 살아 숨쉬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달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2009년 조선왕릉에 이어 통산 10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돈키호테를 저술한 에스파냐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세르반테스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조선왕조의 500년 숨결이 찬란하게 이어져 내려온 동구릉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를 배경으로 그 속에 수많은 문화가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구릉을 잘 아끼고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관심과 사랑이 뒷받침 되어야만 훌륭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구릉의 세계화를 위한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이번 학술대회를 후원 해주신 구리시와 문화재청, 그리고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공적인 행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와 동구릉을 위해 고견을 들려주실 발표자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구리시장 박 영 순

동구릉을 비롯한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동구릉의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서 우리 시는 2004년부터 어가행렬 재연과 학술대회 등 오늘날 시민과 하나되는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동구릉을 더 자랑스럽게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 화성의 사례와 외국의 우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시의 상황에 적용하거나 참고할 아이디어들을 찾고자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방면의 의견들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되어 우리 동구릉과 시민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의 문화유산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진 우리 지역 문화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김문경 구리문화원장 이하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시와 동구릉을 위해 전문가의 식견과 선협자로서의 경험을 들려주실 발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 사

구리시의회 의장 박 석 윤

동구릉을 비롯한 조선왕릉 40基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一주년을 기념하는 구리건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시다시피 동구릉은 조선왕조 518년 27대 왕 중 조선 개국의 꿈과 야망이 잠든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왕과 왕비 17위의 유적이 모여져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왕릉군으로 58만여평의 능 전역은 자연생태가 그대로 보전되어 있어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릉은 1408년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효시로 1855년 익종의 수릉이 들어설 때 까지 500여년간에 걸쳐 조성되었기에 동구릉의 역사를 돌아보면 조선 500년 역사의 부침을 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왕릉은 유교사상과 풍수라고 하는 토착신앙 등 한국인의 세계관이 반영된 장묘문화 공간으로 왕릉에 설치된 석물(石物)조각 등은 조형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선조왕을 섬기는 제례 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한 역사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왕릉의 조성과정과 의례 등을 담은 국조오례의, 의궤, 능지 등 기록물이 그대로 전래되고 있으면서 500년전 왕들의 무덤인 능이 원형 그대로 보전, 관리되고 있는 것은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대표적 문화유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여 지난 2009년 스페인 세피아에서 열린 UNESCO 제 33차 세계 문화 유산 위원회에서는 조선왕릉 40基 전부를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하여 일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국제사회의 보호와 감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의 등재는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속에 인류공영의 문화상이 담겨있다는 국제적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선왕릉의 문화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구릉이 우리 구리시에 있다는 것이 큰 자랑으로 이번 건원 학술대회가 세계문화유산에 걸맞게 동구릉을 가꾸어 나가고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대회는 일제의 식민사관으로 폄하되었던 조선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학계 교수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 대회를 개최하여 주신 김문경 문화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왕릉의 문화적 특성과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이 창 환

상지영서대학 조경학과 교수
이코모스한국위원회 회원

1. 조선왕릉의 개요

지난해 6월 30일 스페인의 역사도시 세비야에서 열리는 제33차 세계유산대회에서 대표적인 능원인 동구릉을 비롯하여 조선왕릉 40기가 연속유산(Serial nomination)으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제 조선왕릉은 세계문화유산적가치(OUV)를 세계인에게 인정받아 세계인이 함께 보존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우리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우리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높이 평가 받은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공간에서 살기 위해 산수가 좋은 자리에 터를 잡아 살아가며, 사후에도 영면(永眠)하기 위해 길지(吉地)를 찾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한나라의 통치자였던 왕과 왕비 무덤의 경우 더욱 그 제도와 정치·사상적 내용을 고려하여 조영되었다. 국가 창설의 운영 논리인 유교와 성리학을 근간으로 조상숭배사상을 중시여겼던 조선시대의 경우 더욱 왕릉으로서의 권위와 지속적 지배논리에 따라 규칙적, 정형적 틀을 갖추면서 한국인의 자연관에 따라 조영됨이 특징이다.

조선시대(1392~1910) 왕실과 관련되는 무덤은 ‘능(陵)’ 과 ‘원(園)’ 그리고 묘

(墓)으로 구분된다. 왕릉으로 불리는 능(陵)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하며, 원(園)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을 말한다. 기타 묘(墓)라 한다.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은 조선 초기에 개성에 조성된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당시의 도읍지인 서울(한양)에서 십리(약4km)밖 백리(약40km) 이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남한에는 왕릉이 40기(북한2기 미포함), 원이 13기, 총 53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능원은 태조이성계의 건원릉등 조선시대 수백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온 동구릉이다. 이곳에는 17분의 왕과 왕비 능침이 있다.

능역 자연지형은 그 혈장이 꼭 짜이게 입구가 좁아야 하는데 조선의 능들은 대부분 입구가 아득히 오므라진 산세를 하고 있는 곳이 일반적인 형국이다(그림1). 입구가 오므라들지 않은 곳은 비보차원의 압승림(案山)과 지당(池塘:蓮池)을 조성하기도 한다.

능원 입지 선정과 조영물의 축조 방법은 전방 산의 형태와 주위 지형의 합치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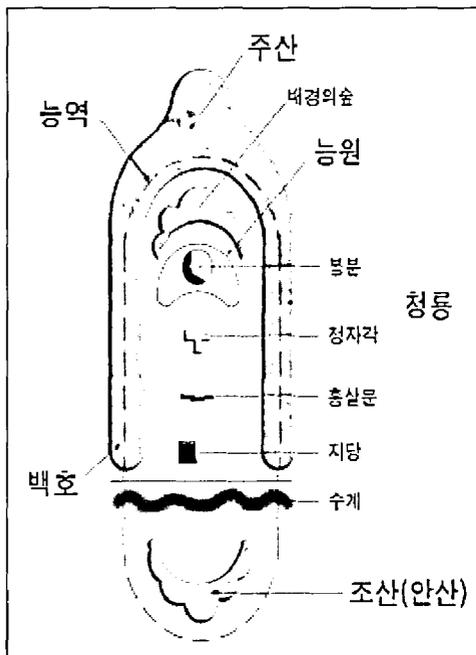


그림1. 조선시대 능역의 경관구성도
(이창환 작성,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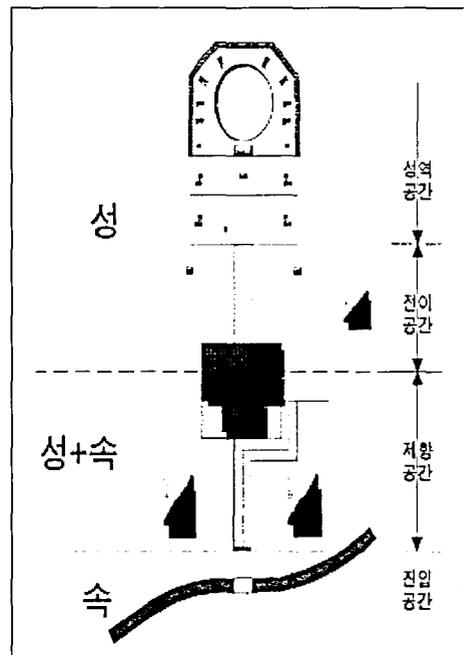


그림2. 조선시대 능원의 공간개념도
(이창환 작성, 1998)

위치와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능원(역)이 자연환경의 일부로 여겨지는 풍수사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로 인하여 조선의 왕릉은 그 형식이 단릉(單陵), 쌍릉(雙陵), 합장릉(合葬陵),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동원상하릉(同原上下陵), 삼연릉(三緣陵), 동봉삼실릉 등 많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다른 나라의 왕조와 다른 독특한 한국만의 왕릉조영 방식이다. 특히 동구릉에는 동원상하릉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능원이 있어 대표적 능원이다.

조선왕릉의 공간구성은 유교의 예법에 따라 진입공간-제향공간-능침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능원의 공간구성요소는 진입공간에 외홍살문, 재실, 지당, 화소 금천교 등이 있으며, 제향공간에는 홍살문, 참도, 수복방, 수라간, 비각(비각), 정자각 등이 있다. 전이공간에는 예감, 산신석, 신도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리고 능주가 묻혀 있는 최상단은 신성시하는 곳으로 능침공간이다. 이곳에는 능주의 침실인 봉분을 중심으로 양석(羊石)과 호석(虎石), 상석(魂遊石), 망주석, 장명등, 문무석인상, 마석(馬石), 곡장 등이 있다. 이밖에 화소, 원찰 등이 능역 외곽에 배치되어 있다.

조선시대 능역의 공간구성은 제향시 사자(死者)와 생자(生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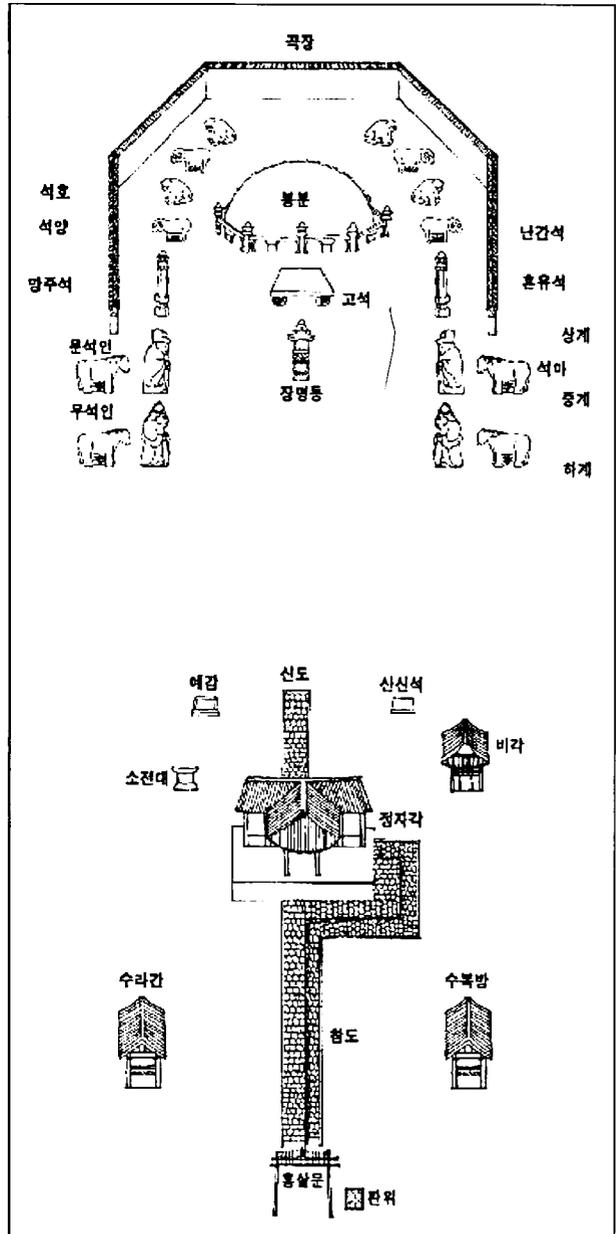


그림3 조선왕릉 상설도 (자료: 2008, 문화재청)

의 만남의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3단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바, 참배객을 위한 숙세의 공간인 진입공간(재실, 지당, 금천교 등), 제향공간(홍살문, 정자각, 수복방 등) 다음은 사자의 공간인 성역공간(상계-중계-하계)으로 대별된다(그림3).

2. 조선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UNESCO)가 세계유산보호협약에 근거해 세계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각국의 신청을 받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실사 및 평가를 받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등록되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은 680여건이 지정되어 있다(2009년 7월 기준). 이중 이탈리아가 41건 등재로 가장 많이 등재되어 있으며 스페인40건, 중국 38건 순이다. 우리나라는 창덕궁, 종묘,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장경판전, 수원화성, 경주 역사유적,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등 8건의 문화유산과 제주 석회용암동굴이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으며 금년에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등재되어 총10건이 등재되었다.

21세기 들어 각국에서는 자국의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유산등재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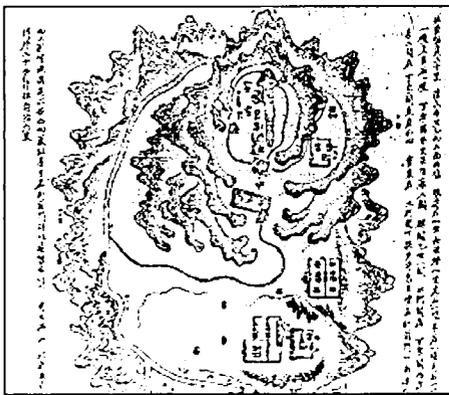


그림4. 영월 단종산릉도(월중도, 장서각소장본)



그림5. 숙종 명릉산릉도

50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제 경제 무역대국으로의 발돋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의 우수성이다. 조선왕릉을 대상으로 세계유산적가치와 동구릉의 가치를 소개한다.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해서는 등재기준 6가지 선정기준(selection criteria; i항-vi항)의 검토를 거쳐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 유사유산과의 비교 및 차별성(comparative studies), 보호 및 관리 능력(conservation and management) 등의 내용을 심의 한다.

조선왕릉은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이래 518년을 이어 온 왕조문화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았다.

- 1) 우리나라 무덤문화는 통일신라 이후 세계의 무덤 문화 중 가장 지형의 곡선(원형)처리를 아름답게 표현한 장묘 문화이다. 조선시대능묘방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독특한 자연 곡선과 가장 조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능묘 형태를 이루어 아름다운 능묘 방식이다.
- 2) 조선시대의 능역은 규모와 양식에서 한국만의 독특성을 갖추고 있다. 능역의 성역공간과 제례공간은 조선518년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국가운영 논리에 따라 공간의 규칙성을 갖고 있으며, 매장의 깊이와 봉분의 높이, 조각 등도 한국식 독특함을 갖추고 있다.
- 3) 조선의 왕릉은 도성의 중심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참배의 거리, 방위, 주변산세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10리(4km)밖 100리(40km)안에 조영을 하여 인위적 그린벨트(Green Belt)를 이루어, 녹지보전(시계영역)¹⁾의 왕릉 숲으로 보전하고 수시로 왕등이 친히 능에 나아가 녹화를 실시한 공간으로 현재의 서울의 그린벨트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왕릉 숲 관리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현재의 광릉수목원²⁾, 홍릉수목원 등의 도시 숲을 형성하는 역사적 배

1) 속종이후 능침공간에서 보이는 모든 영역의 민가와 묘를 이주 하는 등 녹지를 특별히 관리함.

2) 세조는 능묘변화의 혁신을 이루는데 석곽에서 회격제도와 능 주변에 여러 나무를 옮겨 심게 하여 인위적인 식재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로 현재의 수백 년 된 인공적 수림대와 자연적 수림대의 세계적 희귀성과 역사성(1000여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 광릉수목원 및 크낙새 등 천연적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되어 인류생태문화자원으로 충분한 독특성이 있다.

경이 되기도 하였다.

- 4) 조선의 왕릉은 조선시대의 국가통치철학(유교 등)과 정치적 영향(주자학의 실사구시)에 의하여 시대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크기, 구분(문, 무인공간), 석물의 배치, 기타시설물의 배치 등이 특색을 띠고 있다³⁾. 특히 능침공간의 구분 각공간의 규모와 조각양식 등은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예술성을 볼 수 있으며,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를 반영하고 있어서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 5) 건축(정자각, 비각, 신도비, 재실 등)의 배치가 중국 등의 유교국가 능원의 배치와 규모 시각적 특이성, 공간구성의 원리(철학과사상)를 달리하여 예술성을 높이고 있다.
- 6) 조선시대의 능원의 특징은 단일민족에 의한 오랜 기간(오백여년)의 동일 통치 국가의 연속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 정치상황과 사상, 통치철학에 의한 시대적 흐름과 사상 등이 일정한 능원공간의 조영 및 관리사상의 변화, 규칙적 관리, 공간의 영역범위 변화, 조영공간의 형식, 조형물의 변화 등을 반영되고 보전 되어 온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518년간의 42기의 능이 온전히 잘 보존되어 있다.
- 7) 조선시대의 능원은 우리문화의 사상, 역사, 철학, 정치사의 흐름에 따라 그 영역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어 수도권 녹지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의 난개발로 인해 능력의 범위와 능원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조선의 능력은 우리의 경관관리 방법의 하나인 풍수관에 의해 시계영역까지 관리하였으나 최근 들어 능력 앞의 고층아파트 건립 등 경관적 파괴가 이루어져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8) 동양의 철학인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로 그 조영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으로 잘 남겨 있어 보존 관리에 진정성을 확보하며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볼 수 있다. (各種儀軌 및 陵誌 등)
- 9) 능력은 우리문화의 대표적 제례 공간으로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능력에 맞

3) 중국의 능묘제도는 황제의 능묘제도로써 우리와 같이 능묘제도를 하고 있으나 그 형식과 규모, 그리고 예술성에 있어서 달리하고 있다. (명초기: 남경, 명:북경 명심삼릉, 청:동릉과 서릉 등),

는 조경 등 식재의 규칙을 수백 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그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다.

10) 또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물론 현재에도 전주이씨 종약원에서 봉양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제례를 600여년 이어온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위와 같은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조선왕릉을 6가지 문화유산등재 평가항목 중 세가지, 즉 iii)항, iv)항, vi)항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등재시켰다. 구체적으로

iii)항;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

-다른 유교문화 국가와 다르게 조선왕조의 자연관과 세계관에 대한 통일된 접근방법으로 인해 왕릉과 관련된 독특하고 중요한 장묘전통이 탄생하였으며, 풍수사상을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제례를 위한 신성한 공간인 왕릉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iii)의 기준을 충족함.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

-조선시대 시기별로 공간구성, 건축설계, 석물의 크기 등에서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iv)을 충족함. 더구나 조선왕릉은 주변의 환경을 존중하는 독특한 무덤 조영 양식을 잘 보여주며 부속건물 및 관련 요소를 통해서 제례의 전통을 잘 드러내고 있음.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과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인 연계

- 조선왕조 동안에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행해졌고, 지금까지 제례일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과 능별 봉양회가 제례를 지내는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 vi)을 충족함. 더구나 조선왕조는 왕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기 위

한 공간으로 종묘도 설립하였으며, 유교의 영향 아래에서 조선왕릉은 제례라는 살아있는 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음. 등의 세 기준에 평가를 받아 등재되었다.

3.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기대효과

- 1) 문화민족과 문화국가로서 국민의 자부심 고취
- 2) 문화선진국가로서 국가적 위상증진
- 3) 세계유산로서의 세계인의 관심 증진
 - 세계각국 지리, 문화관계교과서와 세계유산 책자에 게재
- 4)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득
 - 유사 문화유산의 경우 등재 후 40%이상 관광객 증가
- 5) 관광자원으로서의 홍보효과
 - 각종 여행 책자에 게재
 - 제주 자연유산의 경우 등재 후 BBC방송, 일본, 중국 세계주요방송12개국 방영
 - 유네스코 홈페이지 및 각나라 유네스코 홈페이지 등 게재 홍보
- 6)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로 부터 기술적, 재정적 지원
- 7) 세계유산으로서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
 - 협약국이 유산지역의 보존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그에 따른 조치
- 8) 유네스코 및 정부의 추가적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계획 및 관리 향상
- 9) 해당지역민의 자부심고취와 보존을 위한 책임감 향상

4. 능제복원 등 향후대책

조선왕릉은 능침의 온전한 보전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변의 개발의 압력,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의 압력, 관광압력,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지적받았으며, 현재 이루어지는 보호조치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능역의 중심지역과 완충지역에 대한 적절한 개발지침을 세울 것을 추가권고 하였다. 중심지역의 관리 복원계획은 문화재청에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외 완충지역관리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밖에 국내인과 세계인이 함께 보존하고 향유하는 방안의 수립과 종합관광계획 등의 즉각적인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중적인 안내해설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동구릉은 그 규모와 형식 역사성에서 가치가 있어 조선왕릉의 대표적 공간이다. 15개 지구의 능역 중 세계유산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으나 중심지역(CORE ZONE)의 능제기본시설인 수복방, 수라간, 재실등의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관람객을 위한 방문자 쉼터 등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진입공간의 확보와 훼손된 금천교, 외연지 등의 능제시설의 정비 및 관람 편의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그리고 고문헌 번역 및 연구시스템의 확충과 주변의 경관관리계획과 관광서비스 시설 등의 확충도 되어야 한다. 동구릉은 주변에 국제수준의 숙박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구릉을 중심으로 한 구리시의 정책적 브랜드 개발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유산이 되도록 시민참여와 시민의 자긍심 확대 방안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먹거리 문화의 개발도 필요하다.

5. 결론

조선왕릉은 조상에 대한 효를 중시하는 유교문화권에서 유교와 그 예법에 따른 당대 최고의 예술과 기술을 집약하여 조영된 왕릉형식의 발전을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또한 조선시대능역 공간 조성의 틀은 자연순응사상 등의 깊이 있는 이해와 자연친화적인 조선시대의 전통조영관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능원은 역사적 녹지공간(오픈스페이스) 중 가장 잘 보존된 공간이며 또한 전통공간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대표적 지역은 동구릉이다.

조선왕릉은 한국인의 자연관과 세계관에 의해 조영된 문화유산으로 비슷한 시기의 타 유교문화권 왕릉들과 다른 독보적이고 특출한 장묘문화이다.

조선시대 왕릉의 세계문화유산적 보편적가치(OUV)는 긴 역사의 동일왕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장기간에 걸친 조성과 완벽한 보존, 조영방식의 독창성, 제례문화의 장구한 전통, 당대기록물의 보존, 역사경관적 가치, 현존하는 제례문화 등이다.

이제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 고취, 국가 와 지역 경제적 효과는 물론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 대책, 종합적 관광계획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대 최고의 역사성과 공간을 갖고 있는 동구릉은 더욱 그렇다.

〈참고문헌〉

1. ICOMOS, 2007, Heritage and Metropolis in Asia and the Pacific, 2007 ICOMOS
2.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Meeting.
3. ICOMOS-KOREA, 2006, 아시아 각국의 왕릉비교연구, 국제학술대회.
4. UNESCO홈페이지
5. 각종 산릉도감 의궤 및 능지(규장각, 장서각,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6. 건축법, 2007, 대한민국정부.
7. 경국대전(禮典3券), 한국정신문화원, 한국정신문화원 번역본
8. 국조오례의, 1982,법제처간
9. 기타 한국 문화재청 관련자료
10. 문화재보호법,2007, 대한민국정부.
11. 문화재청, 2006,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메뉴얼 작성,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12. 문화재청, 2007,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추진 종합 학술 연구, ICOMOS한국위원회.
13. 문화재청, 2009,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대책마련 위한 포럼. 초록집.
14. 유네스코(UNESCO) 홈페이지
15. 이창환,1998,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6. 이창환,1999, 조선시대 능역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27권 5호.
17. 이창환,2001, 조선시대 능역의 재실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5권4호.
18. 조선왕조實錄,1997, 증보판CD,제3집, 서울시스템, (주) 한국데이터베이스 연구소.
19. 한국정부,2008, 조선왕릉세계유산등재신청서, 문화재청

『동구릉 관광자원 활성화 전략』

김길종

경기관광공사 관광마케팅 본부장

I. 서론

2009년 6월 27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 33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uncil)에서 조선왕릉 40기(북한 소재 2기 제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릉은 유교적 전통과 자연을 존중하는 장례문화를 전승하는 독특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방문객들의 단순한 휴게공간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인류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주목받게 되자 이전에 비해 방문객 수가 300~500%까지 증가하였다(문화재청, 2009).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중 78%인 31기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는 “조선 왕릉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사업과 콘텐츠개발, 역사·문화 프로그램개발, 홍보사업 등 4개 영역에 걸친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경기도, 2009).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조선왕릉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부각됨으로서 왕릉을 찾는 방문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왕릉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와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의미가 재조명되

어야 할 것 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개선에 문화자원의 활용방안 및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동구릉이 지닌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구리시가 인지도 있는 문화관광 목적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구릉의 현황파악을 통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및 맞춤형 마케팅의 실현을 통해 동구릉이 지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극대화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동구릉의 일반현황

1) 입장객 현황

동구릉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健元陵)을 비롯하여 왕과 왕비 17위의 유적이 마련돼 있는 곳으로 ‘동쪽에 아홉 개의 왕릉이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왕릉군이다. 동구릉의 조성은 조선왕조 전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동구릉이라고 부른 것은 추존왕 익종의 능인 수릉이 아홉 번째로 조성되던 1855년(철종6) 이후의 일이며, 그 이전에는 동오릉(東五陵), 동칠릉(東七陵)이라고 불렀다. 약 60만평의 넓은 대지 위에 소나무, 참나무 등 수십 종의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뤄 도심 속 휴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해마다 평균 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표1 조선왕릉 입장객 현황 비교〉

	구분	2008	2009	2010
동구릉	외국인	363	1,278	189
	내국인	161,873	183,538	12,435
	계	162,236	184,816	12,624
용·건릉	외국인	1,119	7,147	14,598
	내국인	161,648	143,057	156,328
	계	162,767	150,204	170,726
서오릉	계	339,399	375,345	217,560
영릉	계	491,855	431,749	-

2) 동구릉 관광자원 요소

동구릉이 지닌 관광자원 요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대별된다. 하드웨

2. 동구릉 관광상품 개발

1) 추진업무

- 동구릉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문화재청과 경기도, 구리시 협력)
- 동구릉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안내시스템 확충(경기도, 구리시 협력)
- 동구릉 관광상품 코스 개발
- 스토리/ 브랜드 개발, 관광홍보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배포

2) 세부내용

-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국내외 홍보 프로모션 전개
- 인프라 구축(국, 영, 일, 중)
 - 안내판 및 진입로 정비
 - 이정표 개·보수
 - 관람데크 조성 등
- 해설사 배치 및 안내시스템 구축
 - 다국어 해설안내요원 확보(다문화 가족 활용)
 -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한 서비스 마인드 고취
-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브랜드 개발 및 동영상 홍보물 제작
 - 스토리를 가미한 네이밍 및 CI 개발
 - 동구릉의 문화유산가치와 의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가미한 3D (다국어 버전) 제작
 - 스토리와 에피소드가 있는 홍보물 제작 배포(다국어)
- 왕릉관광상품 코스 개발(4대 코스 개발 및 운영)
 - ① 코스 1: 고즈넉한 가을여행
 - ☞ 서울 - 쿠키체험 - 신륵사 - 영릉
 - ② 코스 2: 왕릉에 흐르는 시간
 - ☞ 서울 - 동구릉(숲체험, 역사탐방) - 서울

③ 코스 3: 정조가 이룬 세계문화유산

☞ 서울 - 수원화성 - 용·건릉 - 서울

④ 코스 4: 코레일과 떠나는 조선왕릉

☞ 금촌 - 삼릉 - 용머리석불입상 - 임진각 - 문산

• 여행사 인센티브

- 홍보물 제작비용, 상품운영에 대한 비용지원 등

• 국내외 홍보 프로모션 전개

국내: 교육여행, 현장학습 전문여행사, 역사관심층에 대한 FIT 유치

국외: 일본 - 실버층(단카이 세대), 역사관심층, 수학여행 단체학생

구미주 - 교포, 역사관심층

동남아 - 실버층, 역사관심층, 수학여행 단체

3) 추진현황

• 역사적 고증을 통한 스토리텔링 개발

- 이땡큐(www.ethankyou.co.kr) 여행이야기/ 조선왕릉 특집 총 6편

• 조선왕릉 관광상품 개발(이땡큐 사이트 판매)

• 국내 체험학습 우수프로그램 상품개발 및 모니터링 투어 실시

- 총 6개 상품(671명 유치)

☞ 건국코스(동구릉), 효행코스(용·건구릉), 세종대왕코스(영릉)

• 해외상품 출시

☞ 동구릉코스: 건원릉 - 구리 고구려대장간마을 - 한정식(Fam Tour 실시, 판매중)

• 국내외 홍보

- GGI Tour(월간) 특집기사(09.9)

- 비즈니스 매거진 "INFOMAG" 특집(09.10)

- KBS 월드라디오: 11개 언어 전세계 방송(09.10.13)

- 조선왕릉 홍보물 제작 배포

4) 추진계획

- 역사탐방 랠리 이벤트
- 길(구리 - 왕숙천 - 동구릉)
- 자전거 Tour 코스 개발 중(동구릉 - 정문부 장군묘 - 광릉 수목원)
- 주변 연계 상품코스 개발(동구릉 - 수목원 - 배상면주차)
- 건원제의 상품화 마케팅(종묘제례, 강릉단오, 단종제)

Ⅲ.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동구릉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과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동구릉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한 방안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부가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동구릉의 관광시설 기반조성 및 외국어안내의 보강문제가 시급하다. 왕릉 조망권 확보와 외국어로 전문적으로 왕릉 해설이 가능한 전문해설사를 배치하고, 각종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둘째, e-thankyou 사이트와 동구릉 homepage의 연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왕릉 여행상품과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왕릉 홍보대사의 위촉을 들 수 있다. 일본 및 중국의 한류효과를 활용하여 인지도있는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왕릉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

넷째, 궁중음식 체험시설을 확보하여 정부의 한식 세계화 정책과의 연계를 꾀한다.

다섯째, 동구릉의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 밖에도 조선시대의 복식을 비롯한 생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공원 건립 및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유치 등 동구릉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 전과 후 : 수원 화성 사례

김 준 혁

수원화성박물관 학예팀장, 문학박사

1. 수원 화성의 복원과 세계유산 등재 의의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전장 5.7km에 달하는 성곽과 부속건물, 도시기반 시설과 생산기반 시설의 총화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이다. 수원의 신도시 건설은 조선 역사에서 도읍인 한성부 건설 이후 가장 대규모의 도시건설 사업이었으며, 18세기 중후반 조선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에 의해 건립된 성곽이자 도시로서 군사적 목적보다는 효심과 개혁사상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 양경체제(兩京體制)를 실시하여 상왕(上王)으로 수원에 거주하여 백성을 위한 새로운 개혁정치를



그림1. 수원 화성 축조

살한 주범이 되었다. 일제의 만행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만행이었던 제암리 교회 학살사건은 바로 수원경찰서에서 저질렀던 것이다. 이처럼 정조 때의 왕권강화와 개혁왕정의 상징물로 건축된 옛 행궁은 웅장하고 운치있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친일기구로 전환된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화성행궁 터는 일제강점기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1975~1979년 5개년 계획으로 국비 32억8천600만의 재원을 들여 화성성곽을 복원하였다. 이 복원사업에 2007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가 복원 설계에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해 화성 복원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대부분의 성곽 시설물을 복원하여 역사유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1970년대 후반 화성의 1차 복원이 이루어진 후부터 수원의 상징인 화성행궁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다

1989년 4월 일부 뜻있는 시민들이 화성행궁의 복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들에 의해 화성행궁 전도를 규장각으로부터 찾았다. 이 일을 계기로 6월부터 화성행궁 복원 추진위원회 발기인 모임을 갖기 시작해서 그해 10월 6일에 화성행궁 복원 추진위원회(준비위원장 심재덕, 추진위원장 김동휘) 창립총회를 갖고 12월에 학술세미나를 열어 화성행궁 복원의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당시 화성행궁 터에 수원의료원의 증개축이 결정되어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된 낡은 병원건물을 현대식 건물로 개축하기 위한 설계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만약 복원이 되기 전에 초현대식 건물이 들어선다면 영원히 화성행궁을 복원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당시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발기인이자 훗날 위원장을 맡은 김동휘 박사(현 등잔박물관장)와 경기도 유네스코 회장 안익승 선생(작고), 심재덕 수원문화원장 등이 임사빈 경기도지사를 면담하였다. 이 결과 임사빈 지사는 흔쾌히 화성행궁 복원을 위하여 수원의료원의 신축을 그만두고 이전(移轉)을 약속하였다.

결국 1990년 12월 22일 화성행궁의 중심부이며 대부분의 건물이 위치한 수원의료원이 이전하였고, 1993년 8월 10일에 화성행궁 복원이 시정 중점시책으로 선정되어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행궁복원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2월 22일에는 행궁복원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994년 3월에는 시비 2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화성행궁지에 대한 유구 및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해 5월 13일에는 구)수원의료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였다. 이어 1995년 4월 24일 화성행궁지가 경기도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화성행궁복원사업을 시정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수원시에서 시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1995년 12월 행궁지 1차 발굴조사를, 1996년 8월에는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복원의 기초 자료인 어도, 기단석, 각종 유구 등을 발굴하였다. 이어 1996년 4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3일 경기도로부터 행궁복원에 대한 설계승인을 받아 7월 18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충실한 자료 수집과 철저한 고증을 통해 완벽한 공사를 진행하여 1997년 9월 12일에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의 상량식을 갖게 되어 화성행궁 복원에 한걸음 나아갔다.

1997년 12월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화성행궁의 복원은 한층 가속화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화성은 창덕궁과 더불어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판전, 종묘 등에 이어 1997년 12월 4일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당시 세계문화유산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51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에 세계 108번째로 가입하였다.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협약 가입국의 문화유산중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된 문화유산을 말한다. 이 가치있는 문화유산에 화성이 당당히 등재된 것이다.

당시 화성은 세계유산 등록기준 ii ‘한 시대나 하나의 문화권을 통해 건축, 기념물, 문화환경 부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과 iii 소멸된 문명이나 문화전통에 대해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한 사례,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

에 근거하여 등재되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는 화성은 동서양을 망라하여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특징을 고루 갖춘 근대초기 군대 건축물의 뛰어난 모범이다.라고 하였으며, 국제기념물유적협회는 “화성은 18세기 군사건축물을 대표하여 유럽과 극동 아시아의 성제의 특징을 통합한 독특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심사위원으로 화성을 방문한 실바(Nimal De Silva) 교수는 “화성의 역사는 불과 200년 밖에 안됐지만 성곽의 건축물이 동일한 것이 없이 각기 다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이후 화성 정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화성행궁에 대한 복원 역시 그 중요성이 더해갔다. 1997년 이후 3차례의 발굴을 통해 각 시설물 터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유구가 출토되었다. 봉수당 복원 이후 총 공사비 325억원을 들여 장락당, 유여택, 경룡관, 신평루 등 주요 건물들을 복원하여 2002년 7월 26일에 1단계 공사로 482칸, 3261.23㎡ 건물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각 시설물에 단청을 하였으며, 궁중유물 전시관 수장고에 있는 현판을 모각하여 봉수당 등 여러 시설물에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10월 9일 역사적인 화성행궁 개관식을 거행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였다.

1997년 12월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수원시는 화성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와 지역민들의 살기좋은 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화성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경관조성 사업에 집중하였다. 화서문 일대에 수원시 최초의 시영아파트 철거와 장안문에서 화홍문에 이르는 불량 주거지 철거 등 성곽 주변의 경관을 조성하고 성신사와 종각 등 미복원 시설물 복원 사업에 약5천억원 복원 정비사업비를 투여하였다. 더불어 화성의 내외부를 계획적으로 재정비하고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는 등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더하여 도심 내부의 문화환경 지속과 도심공동체의 전통화를 통해 새로운 역사마을 만들기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역민의 공동체 형성과 도심 슬럼화를 방지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재정비를 통해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욱 증진

시키는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화성은 외형만이 세계문화유산이 아닌 성곽 내외부 전체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문화들이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공서 위주의 정책 추진이 아닌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작가와 NGO가 함께 결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모범적인 지역만들기를 하고자 한다.

2. 수원 화성의 원형 복원 추진

1) 미복원 시설 복원

18세기의 화성유수부 권역내 시설물 중 현재 미복원된 시설들의 현황을 보면 성곽시설이 18.5%, 성외시설이 30%, 성내시설이 80.6%로 성내시설의 복원율이 현저히 낮다.

1997년 세계유산 등재 이후 복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정조시대 양경체제의 상징이 바로 종각과 성신사였다. 종각은 도성(都城)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한양의 보신각과 같은 의미로 설치된 것이다. 화성의 신(神)을 모신 성신사는 정조의 특명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역시 도성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이다. 수원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두 시설물을 복원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약 5년여의 시간에 투자하여 시설물을 복원하였다.

이와 같은 복원 사업과 함께 장안문의 여장잇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장안문과 팔달문은 교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로타리를 만들어 섬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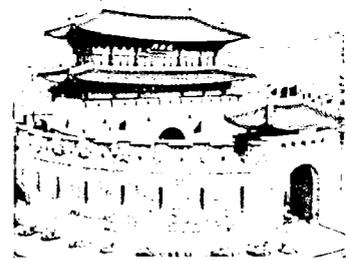


그림4. 장안문 보수



그림5. 장안문 성곽(복원 전)



그림6. 장안문 성곽(복원)



그림7. 훼손된 화성행궁
(1800년대~일제강점기)



그림8. 화성행궁 복원(1차)

은 존재로 만들었다. 장안문과 팔달문은 현존하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문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적 잘못된 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장안문 좌우

의 적대와 연결하는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한쪽 면의 성곽을 완전히 복원하여 화성을 찾는 관광객 모두가 자유롭게 장안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수원시는 미복원 시설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까지 모두 복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복원된 성곽시설은 남수문, 남암문, 남동적대, 남서적대, 남공심돈, 북은구, 남은구 등으로, 당시 화성의 남쪽인 팔달문~동남각루간 시가지는 활발한 시장 지역으로 성벽을 복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복원에서 제외되었고, 북은구와 같은 시설은 위치가 확인되었으나 복원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설물은 복원 당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서 복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복원되어진 시설물의 일부가 『화성성역의궤』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당시 연구에 미흡함이 있어 원형을 정확히 복원해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다.

성외시설물로 미복원된 것은 광교산 서쪽 기슭에 설치된 社稷壇과 광교동 입구의 紙所, 장안문 바깥 길 동쪽 1리 정도에 위치한 迎華驛 등이 있다.

화성 성내의 중요 시설물은 객사·행궁·공해로, 행궁은 현재 1차 복원이 완료되어 전체 건물의 84%가 복원되었지만 객사인 우화관 및 여타 관아 건물들은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화성유수부의 공해 시설 중 원형이 보전된 화령전과 화성행궁의 장원내에 위치하여 복원이 진행된 남북군영, 외정리소, 비장청, 서리청, 집사청을 제외하고는 이야, 중영, 종루, 별효사청, 별군관청, 강무당 행각, 무고행각, 수성고, 군무소, 창고(5), 성신사, 중포사, 내포사, 별주, 분봉상시, 감옥, 수문청(4), 미로한정 등과 남지, 북지, 동지의 연못 모두 복원되지 못하였다.

그동안의 수원시의 역사유적 복원작업이 화성성곽과 화성행궁에 집약된 결과

이들 성곽과 행궁은 완전하지는 못하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화성의 진정한 역사적 의미를 현양하기 위해서는 유수부로서의 신도시 화성이 갖는 의의와 역량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관아시설에 대한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華城城役儀軌』 『附編』과 『畿甸營誌』, 『水原府邑誌』에 화성성역 당시 공해의 기록이 남아있고, 『華城全圖』와 『行宮全圖』 『水原府地圖』, 『1911년 지적현황도』 등의 도설을 통해 이아, 중영 및 강무당, 무고, 수성고 기타 관청건물들의 위치가 대체적으로 파악되므로 아래와 같은 화성유수부의 주요 공해 건물은 우선 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공해 외의 성내 주요 미복원 시설물로는 객사인 于華館이 있는데 행궁의 북쪽에 있다. 1789년에 건립하였고 남향이다. 정칸 7량 24칸, 대청 6칸, 동쪽으로는 온돌 2칸 마루 7칸, 서쪽으로는 온돌 2칸, 마루 5칸 반이고 단청을 입혔다. 내삼문, 중삼문, 중약문이 있다.

또 성신의 사당인 성신사는 팔달산 오른쪽 기슭 병풍바위 위에 동향하여 자리 잡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파괴되어 지금은 의궤에 수록된 도설을 통해서만 그 원형을 알 수 있다. 위패를 모신 정당은 6칸 규모의 맞배지붕양식으로 전돌이 깔린 단 위에 올라서 있다. 사방에 담이 둘러쳐 있고 전면에는 三門을 세웠다. 문의 좌우에는 5칸 행각을 붙였는데 남쪽 2칸은 안쪽을 향하여 전사청으로 쓰였고, 북쪽 3칸은 바깥쪽을 향하여 재실(齋室)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화성성역의궤』에는 北池 1개, 南池 2개, 東池 2개인 총 5개의 연못이 화성 안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안의 물을 빼내기 위한 비밀 배수구인 北隱溝와 南隱溝는 북지와 남지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것으로, 북은구는 北西砲樓의 서쪽 90보, 北鋪樓의 동쪽 37보 지점에 있다

이외에 정조의 신도시 건설과정과 화성성역에서 나타난 자연친화·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의 결과물인 식수조경정책도 연구하여 화성의 경관을 복원하여야 한다.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도시 경관에 대하여서도 고민하여 1,206만 그루라는 엄청난 식재를 단행하였는데, 화성 경내에 3곳의 대형 연못을 조성한 것과

식목정책 모두 백성들의 삶의 질에 대한 배려였던 것이다.

2) 전통을 잇는 문화공간 조성

화성을 문화지속을 위한 또 하나의 방식은 전통과 현재의 조화이다. 화성을 문화도시로 만들고 화성내부의 다양한 문화 소통을 위하여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주요 관아 건물 앞에는 반드시 넓은 마당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마당에서 백성들의 다양한 의사표현이 있었으며, 지역의 행정 책임자인 수령들이 지역 백성들을 다스리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 마당에서 계절별로 존재하는 풍속일마다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당연히 궁궐 앞에도 넓은 마당이 존재하였고 화성행궁 앞에도 넓은 마당이 존재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위민 행사가 진행되었다.

근대화 이후 화성행궁 앞 마당은 토지 소유가 개인에서 이전됨과 더불어 화성행궁 앞에서 종각으로 이어지는 십자로 좌우로 상가(商街)가 형성되어 옛 마당의 흔적이 사라졌다. 이는 곧 수원지역의 문화공간이 사라짐으로서 다양한 소통의 공간이 사라져 문화의 단절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전통과 현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화성행궁 앞 마당을 재현하고 이를 확대하여 21세기 형에 맞는 광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화성행궁 앞에서부터 십자로의 중심지까지 약7,500평을 매입하여 광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일차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여 광장으로 조성하고 지하에 매설된 문화유산의 존재를 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광장을 조성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발굴조사 결과 이후 화성행궁 앞 광장 조성에 대한 연구와 용역을 추진하였고, 지역 주민들과 작가 그리고 역사 전문가, 문화재위원과의 공청회를



그림9. 행궁 앞 광장(조성계획)



그림10. 행궁 앞 광장(조성전)

통해 마침내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광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과거 전통시대에 화성행

궁의 마당으로 사용된 공간은 그 의미와 공간을 재현하기로 하였으며, 광장을 받은 현대화된 광장 조성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광장의 앞쪽은 전통의 흔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황토 포장과 옛 지적도를 표시하여 현대가 나아가는 후손들이 옛 기억을 통해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광장 뒤쪽은 단순히 현대화된 광장으로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 표면에 정조시대 위민정치와 개혁정치를 상징하는 그림을 도자판으로 구성하여 광장으로 조성하였다.

정조의 8일간 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인정하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진찬연을 그린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와 정조가 화성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을 그린 ‘화성성조도(華城城操圖)’를 당시 원형의 그림대로 칼라로 표현하며, 정조가 화성행궁 정문인 신평루 앞에서 수원지역의 가장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위민정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평루사미도(新豐樓賜米圖)’와 수원 화성의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기뻐하며 신분의 차별없이 하나가 되어 잔치를 즐기는 ‘낙성연도(落成宴圖)’를 표현할 계획이다.

이 광장을 조성하여 수원지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전통행사만이 아닌 현대적 개념에 충실한 밴드 문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며, 수원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결국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것이 문화지속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수원 화성의 무형 문화 지속 발전

1) 무예24기 계승 시연

수원에는 다른 지역에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무형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수원 화성을 축성한 정조에 의해 만들어진 장용영 군사들의 무예인 무예24기이다. 무예24기는 1790년에 편찬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라



그림11. 무예 24기 재연

고 하는 무예서에 나오는 24가지의 무예이다. 정조는 왕권강화와 외세로부터 조선을 방어하기 위한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최강의 군영인 장용영을 창건하였다. 1793년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수원에 주둔한 약 850명의 장용영군사를 확대하여 약4,500여명의 주둔하게 하고 그 부대 이름을 장용영외영이라 부르게 하였다. 정조는 수원에 주둔한 장용영외영의 군사들을 서울에 주둔한 군사들보다 모든 능력이 뛰어난 군사들을 배치하여 수원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자신이 훗날 수원을 중심으로 개혁정치를 펼칠 것을 준비하였다.

정조는 이 장용영외영의 군사들에게 특별히 자신이 만든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를 익히게 하여 최강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였다. 따라서 수원에 주둔한 장용영외영의 군사들이 익혔던 무예24기는 곧 수원의 무예인 것이다.

이 무예는 조선의 검법을 중심으로 창법과 곤법, 마상무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예를 정리하였으며, 아주 상세한 그림과 설명을 하여 무예를 익히는 사람들 모두가 충분히 수련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근대화 이후 전통무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점차 사라져갔던 무예에 대하여 수원시는 2003년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시작하여 장용영의 무예24기를 재현하고 있다.

화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조시대에 무예를 수련하였던 역사적 장소인 연무대(鍊武臺)와 화성행궁 앞 마당에서 매일 아침 무예를 수련하고 있고, 화성 내에 무예 수련관에서 역시 오후에 무예를 수련하고 있다. 이는 무예를 수련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만의 책임이 아닌 화성 내 거주자 및 수원시민들의 상당수가 무예 수련을 통해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무예24기를 재현하고 보급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무예전문 시연단 30여명을 조직하여 화성행궁 앞 마당에서 매일 11시에 30분동안 무예를 시연하고 있으며, 이 무예를 보기 위해 상당수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현재 무예24기는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욱 많은 재정지원과 무예인들을 발굴하고 이를 보다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 국제적 명성을 얻는 수원의 무예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2) 8일간의 행차 재연

수원지역은 정조의 부친이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는 곳이기에 정조는 해마다 부친인 사도세자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하여 수원을 방문하였다. 국왕의 행차는 1년에 한번 정도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국왕이 행차를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국가적 행사로 발전된다. 따라서 국왕의 행차에는 다양한 공연과 의례가 시연되어지고 있다. 특히 정조의 1795년에 있었던 수원행차는 어머니 혜경궁홍씨의 회갑연을 치루기 위한 것이었기에 그 의미가 특별하였다.

정조는 무려 6,000여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원을 거느리고 수원으로 행차하여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수원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치루어주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 과거시험과 양로연 행사를 겸하였다. 또한 화성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의 무예 시력을 확인하고 이들이 화성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주간과 야간에 군사훈련과 불꽃놀이를 실시하였다.

위에 열거한 행사들은 단순한 왕실 행사가 아닌 정조시대 모든 문화를 총 결집하여 보여주는 자연스런 행사였고 엄청난 인원과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는 조선시대 최고의 문화행사였다. 더불어 이 행사는 왕실의 도화서에서 파견된 화원들에 의해 상세한 그림이 그려지고, 사관들에 의하여 모근 행사가 기록되어져 있다. 국왕이 매 시마다 먹었던 음식의 재료와 크기뿐만 아니라 복식 및 군사들이



그림12. 혜경궁 홍씨 진찬연 재연



그림13. 정조대왕 화성행차 재연

지냈던 무기의 크기까지 상세히 기록되어져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고 이 책은 2007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될 정도였다.

수원시는 1997년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난 직후부터 수원시민의 날에 거행되던 문화축제를 대규모로 확대하여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록을 토대로 혜경궁 홍씨의 회갑진찬연과 과거시험 그리고 주야간 군사훈련을 재현하고 있다. 특히 당시에 그려진 행차의 순서를 기록한 ‘반차도(班次圖)’라고 하는 그림의 순서에 따라 사람과 말 그리고 가마를 배치하여 1779명이 행렬하는 장엄한 모습을 원형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가 수원시민의 날과 가까운 토요일에 행사를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이를 보기 위해 약 50만명의 인원이 수원을 방문하고 있다.

이 행사는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수원에서만 존재하였던 조선시대 최대의 행사로서 단순히 기록을 토대로 행사를 재현하는 것만이 아닌 조선시대 우리민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려주는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수원시는 당시 8일간에 있었던 모든 행사를 철저한 기록을 토대로 인원과 복식 그리고 무기와 장신구를 원형대로 제작하여 이를 착용한 상태로 행사 예법이 담긴 기록의 순서대로 행사를 재현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수원만의 독특한 문화이자 세계인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행사로 재현하고 나아가 무예24기와 더불어 수원의 8일간의 행차라는 이름으로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킬 예정이다.

3) 전통 음식문화 재창조

수원지역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른 특별한 음식문화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1795년에 있었던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으로 인하여 다양한 궁중음식문화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에는 서울의 궁궐에 있는 수라간의 분소인 ‘별주(別廚)’가 건립되어 독자적인 왕실의 궁중음식문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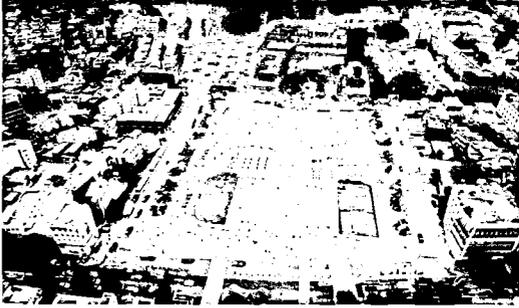


그림14. 행궁 주변 한옥 음식거리 조성계획 부지 (광장 양쪽)



그림15. 행궁 주변 한옥 음식거리 조성계획

형성되었다.

당시 회갑진찬연에 차려진 모든 음식들은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음식 재료와 조리 방법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어 화성에서 정조와 혜경궁 그리고 당시 관료들이 먹은 음식을 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회갑진찬연에 차려진 82종의 음식은 궁중 음식문화의 진수이고, 이동중에 드시 평시 음식은 왕실의 평시 음식이기에 수원지역의 대표적 고급 음식문화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수원시는 화성행궁 별주를 복원하여 궁중음식을 만들었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설정하고 ‘한국궁중음식연구원’을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건립한 후 수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궁중음식문화를 선보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당시 사도세자의 현릉원 조성과 용주사 건립 이후 나타난 수원지역의 특수한 음식문화를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보급하여 수원시민만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들은 각기 지역의 대표적 음식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전통문화로 발전시켜 계승하여 자연스럽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돼지 족발 바비큐가 대표적 관광 음식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이 음식과 더불어 생맥주를 마시는 것은 관광객의 즐거움이 되어 버렸다.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독특한 회초밥 기법이 다르고, 일본 고유의 술인 정종의 문화도 달라 역사문화도시를 방문하여 지역의 대표 음식과 술을 먹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수원의 경우 대표 음식으로 설정된 것이 수원갈비이고, 술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수원갈비는 실제 1970년대 이후 수원의 대표음식으로 발전한 것이기에 전통성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조의 화성행차시에 드신 다양한 음식과 기록상에 나타나는 정조의 기호식품을 재현하고 이를 대중화하여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고유 음식으로 정착케 하고 이를 더욱 세련된 음식으로 만들어 관광객을 위한 고급 음식문화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4.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시 기반 조성

1) 옛길 문화공간 조성

화성의 역사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느낌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생산성이 아닌 거주 환경과 삶의 양식을 우선시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견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보행 위주의 도시 경험은 작은 규모의 조직 속에 담긴 시간, 기억, 장소성의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성 내 도로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를 위해 계획, 대중 교통 수단을 제외한 자동차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며 보행자 위주의 중심영역을 설정하여 화성을 보다 직접적이며 세밀하게 경험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결국 보행을 통한 화성 여행과 화성 도심내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성의 옛 길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세계 유수의 역사문화도시는 옛 거리를 그대로 보존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거리 내에 음식점과 휴게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거리로 유인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거리의 활성화는 오랫동안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역사성을 온전히 담보함으로써 지역의 생명력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 화성 역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답게 옛 길이 현재 대부분 남아있고 이를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은 축성 직후 만들어진 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를 통해 도심 내부의 공공기관 위치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시대

인 1911년에 작성된 수원의 지적도는 세밀한 측정으로 도심 내부의 각종 건물과 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제작된 지적도와 화성성역의궤의 도면에서 나오는 화성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1911년 지적도는 화성의 옛 원형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화성 성곽 내부는 처음 조성될 당시 가로(街路)가 조성되었다. 화성의 가로는 크게 두단계로 공사를 거쳐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십자가로(十字街路)로 공사이고, 또 하나는 신작로(新作路) 공사였다. 크게 이 도로 공사 외에 공공 건물과 가가호호를 잇은 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화성 내에 옛 길 복원은 크게 신작로 복원과 도심 내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길의 복원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도로 바닥의 재질과 주변 건물의 조형물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결정한다. 전반적인 옛 길 재생 이전에도 특정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간판을 재정비하는 사례로 존재한다.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반차도(班次圖)’를 기본으로 지역 상가의 특성에 맞게 미술작가들이 간판의 디자인을 창작하여 새로 설치하는 것은 예 거리 재생의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차적인 간판 교체만으로도 문화거리로 평가받으면서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 증가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이 충만해졌다. 이는 단순히 문화지속과 문화마을 가꾸기만이 아닌 지역에 대한 애정의 증가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옛 길 재생 사업은 한옥 조성 및 복원 시설 정비와 연계한 재생사업으로 가능하며 보행권의 자유로움으로 문화지속이 가능하며, 새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다.

2) 수원천변 문화거리 조성

수원 화성 내에는 대표적인 예술과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도시들은 지역내에 반드시 문화예술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정조시대 화성은 문화예술의 중심이 화성행궁에 있었기 때문

에 따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지 않았기에 현재 성곽 내에 별다른 문화예술의 거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수원 화성이 곧 문화의 총화로 건립된 성곽이기에 성곽 내에 전통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문화를 집중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의 거리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수원 화성이 역사도시로서의 동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시스템 구축하는 것임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신예술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여 담고자 하는 문화예술자원들이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확대하면 도시 문화 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일반 사업과 한가지로 문화예술 시장의 창작,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 소비기반, 산업기반 조성을 조성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인 유치하여 국제적인 예술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조시대 만들어진 수원천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좌우에 예술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수원천은 자연하천으로 그 명성이 높으며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천변 도로의 정비와 작은 공원 공간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리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문화거리 조성 방법은 두 가지로 계획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천변 주변의 건물을 수원시가 매입하여 리모델링 한 후 작가와 공방운영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는 이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고 문화공방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천변의 건물을 임대하여 예술품을 만드는 공방과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수원천변에서 작가가 작품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관광객이 와서 관람할 수 있으며, 이를 공간 내에서 체험이 가능하게 하고 더불어 작품을 판매하는 원스톱 문화예술거리로 만들게 하는 것이 수원시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수원시는 지역의 레지던시 작가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여 작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행궁 광장 옆 이아(貳衙) 복원을 위해 매입한 건물들을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제거하여 철거대상 지역을 작가들의 상상공간으로 만들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의 연결고리인 예술 공간으로

창조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33명의 작가가 오픈 공간에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하는 것은 화성의 역사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의 문화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물론 이 레지던시 작가들의 창작활동은 5월부터 10월이라는 한시적 사업이지만 향후 수원시는 수원천 일대의 건물을 매입하여 작가들에게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전통 고가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민속품을 천변에서 일주일에 한번 특별 시장(일명 도깨비 시장)을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거리를 형성함으로써 수원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즐거운 쇼핑 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의 시민들이 풍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은 성곽 내에 있는 골동품 전문 상가가 주도하게 하여 이들이 성곽 내 문화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결국 수원천변이 단순히 천변으로서가 아닌 문화예술의 중심 거리로서 지역 주민과 작가 더불어 수원시가 하나가 되어 문화가 지속되고 새로운 문화거리(문화마을)이 형성되는 것이다.

3) 한옥마을 조성

화성의 도심은 화성행궁 앞으로 만들어진 십자로를 중심으로 4구역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십자로의 서남쪽 지역은 화성행궁의 남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관료들과 부유층의 거주지였다. 따라서 한옥들이 대부분이었고 궁궐외에 가장 크다고 평가하는 99칸의 한옥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현재 화성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조시대 및 그 후대에 만들어진 한옥이 대부분 사라졌고 국적 불명의 건축물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의 특징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도심이 대부분 전통의 건물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심내의 전통스런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화성은 한옥들이 대부분 사라져 전통의 도시 모습을 확인시켜주기 어렵

기 때문에 북촌의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등과 같은 역사도시에서의 한옥마을을 성곽 내에 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화성 내에 일차적으로 존치가능 한옥을 중심으로 한옥 지원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화성내 한옥의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옥 지정제’를 실시하여 필지별 한옥 지정 후 규제 및 지원을 하는 강제적 지정과 ‘한옥 등록제’를 통해 한옥지구 지정 후 규제 및 지원을 하는 자율적 등록이 필요하다.

5. 결론

수원 화성은 오늘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이다. 박제된 문화유산이 아닌 삶이 숨쉬는 곳이다. 성곽 내 청과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곽 내에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맑게 해주는 종교인들과 관광종사원 등 다양한 부류의 인물군상이 숨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으로 인하여 사적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것에 무척이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비록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화성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5년간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화성 내부의 지구단위 계획지구를 매입하여 전통 문화도시로 조성한다고 발표하여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기다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의 사업 번복으로 인하여 호성 내부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은 극도에 다다랐고,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화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수원시는 단순히 화성의 하드웨어적 복원사업이 아닌 시민과 함께 화성을 변화 발전시키는 사업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성을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시로 만드는 가장 큰 기본은 바로 이들

의 삶을 인정하고 이들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다. 문화유산의 복원만을 위하여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더불어 도시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문화유산 복원에만 치우친다면 그것 역시 옳바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너무 속도전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곽 내외에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문화유산 복원의 실제적 기능들이 화성을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화성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지역의 예술문화인들, 그리고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옳바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는 이와같은 방향으로 화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10여년이 지난 뒤에 이와 같은 노력들이 서서히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NOTE

세계유산보호와 지역사회 공생협력에 관한 외국 사례

허 권

유네스코평화센터 원장
ICOMOS-KOREA 부위원장

I. 지역사회 중심 보호정책의 필요성

1. 문화유산보호의 의미

문화는 과거의 축적위에 생성되는 개념이다. 우리는 역사의 연속선상 한 순간에 위치하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고 이를 다음 세대로 또 다시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역사의 릴레이이며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단순히 전해진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급속한 근대화가 이루어진 한국의 경우, 시민들 대다수는 과거 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를 미래세대에게 전수시키는 일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뜻과 가치를 찾아내어 다시 활용함으로써 ‘문화의 르네상스’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지역에 잠재하고 있는 품격있는 각종 가치관과 문화가 현대사회에서 점차 망각되어 가고 있고, 도시화의 와중에서 과거의 희미한 기억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유산은 한 시대정신의 결정이요 역사의 거울이다. 우리에게 지난 일을 알

려줄 뿐 아니라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바로 문화유산인 것이다. 이러한 유산을 찾고 보존하려는 의지, 즉 향토의식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역의 유산을 통해 매력이 있는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지역의 역사는 그 속에서 영위되는 주민생활의 변화와 함께 그 환경 전체가 끊임없이 변천해 나간다. 따라서 문화재와 역사적 경관도 그러한 새로운 변화의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보존이란 유산을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존이란 창조적 행위, 실천적 창조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경관을 '동결적 규제'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지역개발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과거의 의'를 계승해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중지를 모아, 이를 전승할 필요가 있다.

2. 지방문화에서의 유산의 위상

우리 한국인은 오랜 역사를 거듭하면서 자연계의 순환논리에 순응하여 자연의 힘을 활용하고, 자연과 일체가 된 생활을 영위해 왔다. 우리 문화의식 속에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심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적 기술의 등장으로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일체적인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여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소재로 한 균질적인 도시공간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환경을 형성했던 자연으로부터도 그 '야성'이 상실되어 '자연의 장치화(裝置化)'를 급속히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과 물질의 반목, 전통과 현대와의 갈등, 과거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은 우리 지방도시의 공통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문화의 기본 구조(예술문화, 유산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지향하고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의 기본구조 강화를 위한 지자체, 시

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1) 예술문화

모든 지역에는 수준높은 예술을 가지고 있다. 일반 서민문화를 견인하는 표현 예술로서의 문화의 정수는 그 지방의 문화의 질을 가늠하는 측정기준이기도 하며 그 지방, 시민의 상징적 품격이기도 하다. 표현예술은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살아가는데 무엇이 인간을 지탱해 주는가 하는 문제와의 접점에서 생성된다. 지역의 수준 높은 예술은 문화유산, 전통, 삶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전환시켜주는 동력으로 지방정부는 지원을 해주고 시민이 형성해가는 중요한 문화이다. 예술가, 예술교육가, 문화운동가 등은 자신의 표현예술 속에서 지방의 전통, 역사, 삶을 표현해가는 중요한 활동가들이다.

2) 유산문화

지방의 문화적 역사를 상징하며 미래의 문화향상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유산문화들이다. 음악, 공예, 공연, 문학 등 무형적 요소와 함께 건조물, 기념물, 사적 등 유형적 요소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유산들은 지역의 보존대상일 뿐 아니라 재창조의 기반이 된다. 박물관, 문화재 발굴과 보전, 전통문화의 재현과 전승 등의 활동과 참여를 통해 지역의 유산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

3) 생활문화

유산문화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예술문화는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수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생활문화는 현재의 시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반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사업과 관련된 수평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생활문화는 지방의 문화행정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지자체의 여러 다른 부서에서 제각기 수행해 오는 영역이다. 그러나 역사도시, 전통마을, 세계유산이 위치한 특정지역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행정은 문화행정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지역의 예술, 유산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인식의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생활문화는 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주관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지역유산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에게 지역의 맛, 색, 느낌을 고조하거나 강화시키는 객관적 요소가 된다는 인식하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의 풍광을 보전하고 특징화하는 절대적 주체자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민주화, 정책의 투명화,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유산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1차적 유산정책에서 유산을 생활화하고 관광자원화하는 2차적 유산정책, 포괄적 지속가능한 유산정책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 지역주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

오늘날의 유산에 대한 정의와 이의 보존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당히 변하고 있다. 단순히 기념물, 사적 및 건축의 미적 아름다움만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자원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보호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가 얼마만큼 보호의식이 있으며 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유산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아울러 보전관리자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유산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및 정체성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유산관리자의 태도는 유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산과 지역주민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잘 숙지할 때 발전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적, 지역적 중요성이 있는 유산의 보호는 늘 통제 대상이다. 독특하고 빼어난 가치, 그리고 한 번 파괴되면 원형복원이 불가능한 취약성 때문에 각종 파손, 멸실, 손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법, 시행령, 규정, 조례에 의해 통제관리 되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유산과 단절되고 자연히 유산의 보호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유산관리자나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단절의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주민과 유산관리자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산은 과거의 산물이지만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II. 외국의 지역주민 협력 성공사례

유산보호에 관한 시민활동은 대상과 범위에 따라 그리고 참여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보호 및 완충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학문적 관심으로 참여하는 주민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이들 주민들은 때로는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치되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상명하달식의 조정은 커다란 충돌로 야기되면 궁극적으로 유산가치의 보호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1. 거주위치에 따른 다른 이해관계

보호 및 완충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유산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인정신이 요구되며 생활상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 이는 시차원에서의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경우 매우 안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협의회를 통해 보존 및 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민주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자체,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이 갖게 될 여러 고초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여러 유산지역에서 주민보전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시라카와 고'는 나름대로 주민유산보호헌장(3 No 원칙: 팔지 말고, 임대하지 말고, 파손하지 말자)을 강령으로 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익창출을 위해 입장료, 프로그램 운영수입, 재정지원 및 시설장비의 지원책 등 다양한 보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 경관 행정지침의 준수
- 주택, 주민 중심의 상가 등의 문화환경 개선 및 유지

- 주차, 교통의 원칙(관광객 편의 고려)

그러나 외부 내방객들은 지역주민들이 갖는 생활상의 고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관광, 교육 및 문화적 목적으로 유산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고초보다는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의 충족에 우선 순위를 두게 마련이다.

2. 경제활동에 따른 이해관계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명소, 세계유산 지역에는 해마다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조선왕릉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전체적으로 약 7배의 많은 내방객들이 방문하여 양적인 급속한 팽창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여러 형태로 관련될 수 있는데 관광회사, 요식업, 기념품가게, 편의점 등이 주사업체들이다. 이들 계층에는 일부 유산지역의 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유산지역 근원거리에 따라 대부분 외부 경제주체들이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유산지역내외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느냐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좁게는 유산보호관리 정책에 관여될 뿐 아니라 넓게 보면 시 전반의 종합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세밀한 가이드 라인, 합의원칙 등이 지역주민 중심으로 협의되지 않을 경우, 유산가치의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유산보호 활동에 따른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

광의의 의미에서 유산의 보호에는 보수, 복원, 개수, 방재, 교육, 관광, 인식제고, 교육훈련, 축제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 모든 개별활동에 시민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전문성, 관련성, 책임의 폭에 따라 제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유산의 보수, 복원, 개수, 방재는 유산관리자 중심으로 전문성적으로는 직원 및 행정요

원들이 참여직원 그 밖에 영역에서방되어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유산의 보수 등의 영역이 전문가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일부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

가. 보전활동

- 시민 모니터링
- 문화재해설 자원활동: 외국어 통역봉사 포함
- 문화재보호 기초활동: 청소, 벌초, 교통안내, 유산교육, 유산관리자 업무 보조 등

나. 교육 및 문화활동

- 유산교육(보전 포함) 및 인식제고 사업에 참여
- 각종 학교와의 연계 사업 지원(프로그램, 교육자료의 공동개발)
- 유산지역 내외의 미적 개량사업 및 공연, 축제 등의 내실화, 특성화
- 문화콘텐츠(지역의 기억사업) 개발 기여

다. 관광

- 각종 관광안내 봉사활동
- 연계 및 파생 관광사업의 개발 및 운영
- 관광점포의 특성화 등
- 홈스테이 등 체험활동 참여
- 홈페이지를 통한 유산소개

1.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 역사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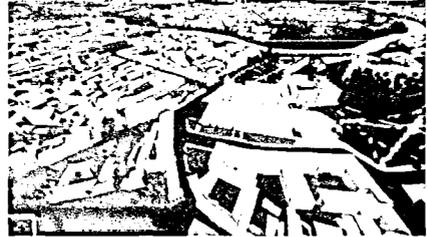
가. 도시경관 3D GIS 개발적용과 시민의 지지

■ 현황

- 2005년까지 빌니우스 마스터 플랜(1999년 발표)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
- 20세기 말 현재, 35m 높이 이상의 근대 건축물 200동이 건립되었고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역사지구의 주변경관 훼손 우려

■ 조치

- 2004년, 빌리우스 공과대학의 지원으로 도심 고도제한 계획을 최초로 마련.
- 2007년, 새로운 도시 마스터 플랜(2015년까지 발효)을 마련.
 - 신축가능 지역 및 높이, 우수한 조망지점 17곳을 선정
 - 3D GIS 개발(1천분의 1)



■ 효과

- 신축 건축물 사전 평가 및 심의 가능
- 도심의 역사경관 완전성, 파노라마 조경 유지 가능

■ 지역사회 참여

- 시민들은 시청사에 전시된 3D GIS를 통해 도시경관 유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 특히 건축업자, 사업자들간 도심의 역사 및 자연경관 유지에 적극 참여케 하는 효과

나. 문화유산 정보센터 설치

■ 현황

- 지구화, 서구화의 영향받은 신세대, 이주자들은 역사유적의 가치 몰이해 및 보호필요성, 보전 업무에 대해 낮은 인식도
- 가옥 및 주택의 시설을 자신의 편의와 이익에 따라 변경하는 사례 속출



■ 조치

- 2000년, 문화유산 정보센터 설치
 - 구도심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수행
 - 유산보호 인식제고, 기술자문, 재정지원 등
- 지역발전 유산보전 기금 조성(public-private 파트너십)
 - 1) 개인주택의 복원, 보수사업 지원
 - 최고 50%: 지붕보수, 도로측 외관, 건축물의 외부
 - 최고 40%: 내부 정원
 - 2) 지역주민 의식화 사업(회의, 세미나, 청소년 참여 사업, 훈련 등)



- 3) 정보 및 소통 사업(팸프렛, 웹 등)
 - 어떻게 역사유산 보호사업에 참여하는가
 - 보전 가이드라인
 - 역사건축물 유지 9개 계명
 - 재원지원 안내서
 - 목조건축물의 보전관리
 - 역사건축물의 개량: 창문, 문, 벽 등)
- 보존 유산목록화 사업

■ 효과

- 2000-08년도, 70개 사업 지원
- 일반시민, 청소년, 학생들의 인식제고
- 지역주민의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통합성에 근거.

■ 지역사회 참여

- 재정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소수의 가옥주만 참여(과거 공산주의 시대 소유개념 희박해짐.)

2. 오스트리아 그라츠: 세계유산조정사무소 설치

■ 현황

- 세계유산 관련업무(그라츠 역사 고도 보전법 1980, 스티리안 건축법 등)가 시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지역주민들이 각종 민원, 자문청취에 어려움. 효율성, 경제성 등 개선해야 할 필요 절감

■ 조치

- 2007년 세계유산관리계획 수립 후, 동년 2월 세계유산 보호관련 실무업무를 조정할 사무소를 개설
- 보전, 보수, 복원 등 관련 신청서 제출 이전에 전문적인 자문제공
- 산재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통괄 조정.
- 각종 정보의 교환

■ 효과

- 매월 1회 정기 실무회의 개최
 - 2007년 개설이후 2009년까지 21건을 심의
- ※ 유산 관련업무의 전문화, 시민과 개발사업자간의 투명성 유지 가능



■ 지역사회 참여

- 사유재산의 보호, 보전, 보수의 객관적 평가 및 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보호의식 향상

3. 말타 발레타: 차량 체증 할증부과제도

■ 현황

- 역사지구 도보관광의 증대 필요
- 장기 및 불법주차, 통행차량의 숫적 증가로 인한 혼잡
- 교통통제와 상권 활성화의 균형 필요

■ 조치

- 차량번호 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차량등록 및 연 사용료 책정(다양한 지불방법, 감면혜택조항, 주민혜택, 시간 등 고려)

■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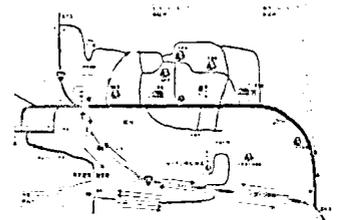
- 도보자의 관광권 확대
- 역사도심지역의 공기 오염 축소
- 장기주차 및 불필요한 차량진입 감소

■ 지역사회 참여

- 주민의 경제권, 거주쾌적도 향상



※ 일본 '시라카와 고'의 공
휴일 차량 차단제도
일본 동경 '아사쿠사' 사
원: 주민의 자전거 통행



4. 프랑스 Poitiers 역사지구: 장애인 관광권의 신장

■ 현황

- 각종 장애인의 유산감상권 및 문화권의 신장 필요
- 일부 유적지는 진입로와 내부 공간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접근, 교육자료 등까지 구비한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

■ 조치

- 시 차원에서 “관광과 장애인지원” 계획 수립
 -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신체부자유자, 정신박약자로 구분
- 특수 미디어 도서관 개설
 - 시각, 청각 장애자를 위한 각종 점자책, 자료, 시각 자료 등을 구비
 - 도서 우편제도 도입
- 유적지, 박물관 지원사업 개발
 - 수화 안내
 - 특수법인과의 네트워크 강화,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보수
- 대중교통
 - 시설 보완 및 안내교육

■ 효과

- 도시 이미지(인권, 문화권 등) 개선
- 장애인의 문화참여 확대

■ 지역사회 참여

- 유산해설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5. 독일 레겐스부르크: 소매상권의 보호

■ 현황

- 대형 쇼핑센터의 출현으로 경영 악화 및 유산지역의 낙후 초래

■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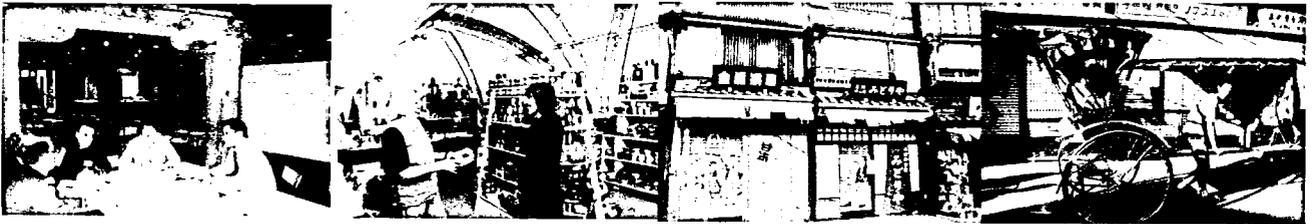
- 소매상 경영 원칙과 지침
- 시민참여의 경제활성화

■ 효과

- 유산과 지역사회 경제의 공존 및 안정화
- 젊은 세대들의 유입
- 역사지구 구도심의 무형적 가치의 보전(페스티벌, 민속 등)

■ 지역사회 참여

- 유산보호의 책임자, 공동책임자로의 인식 확고화
- 관광, 경제활동을 보호활동과 함께 병행



6. 시민중심의 국제협력

■ 아시아 세계유산 보호 국제협력 사례

세계유산협약 제5조는 체약국의 의무 즉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 보전, 진흥을 위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유산센터는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2가지의 접근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인류의 보편타

당한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해당 유물의 복원, 보전이라는 미시적인 접근(진정성 authenticity)과 유산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이용 (완전성 integrity)이라는 거시적 접근이 그것이다.

세계유산센터는 그동안 여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오늘날의 아시아 세계유산도시들은 자체적인 파손 과정뿐 아니라 인위적이고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더 많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산의 진정성과 유산성, 그리고 유산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발전으로의 기여를 위해 몇 가지의 중요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다.

- 도시와 자연환경
- 운송, 교통시스템 개발과 역사도시의 보전
- 공공의 도시공간으로서의 정원
- 도심내 역사유적지의 지속적인 파괴와 보전
- 문화관광과 문화적 가치
- 도시 정체성과 유적
- 빈곤의 완화, 주거 개선, 거주지의 다목적 활용 및 개선의 방법
- 역사건축물의 재활용
- 전통역사도심과 개발지역간의 가치연계

가. 유산도시간의 양자 협력 사례

1) 라오스의 루앙 프라방

○ 1996년 프랑스 르와르 계곡에 위치한 시농이라는 도시와 라오스 루앙 프라방 주 당국사이의 공동협력 개시

○ 1996-99년

○ 주요 사업

- 국가 유산보호법 및 주정부 규정 작성

- 유산보호 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정부에 구성
- 보호지역내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제정
- 전통가옥의 편의시설 개조공사 계획
- 유산보호 관리에 관한 자문 및 지원하는 유산의 집 설립
- 전통건축물 자재 은행 구성
- 보호지역내 1,000여 가옥 건축학적 조사

2) 베트남 후에 Hue 역사지구

- 1997년 프랑스 릴레 Lille시와 후에시 당국사이의 공동협력
- 주요 목적: 지역공동체의 참여 증진, 유산의 집 건립, 주거건축물 복구 및 개선기금 운영 등
- 1997-99년간 20만불 지원

나. 합천 해인사 - 독일 로슈 사원 세계유산 민간협력

- 동서양의 정신문화보고(불교, 기독교)간 시민교류
 - 지자체, 사원, 국가위원회간 국제보호협력 MOU 체결
 - 시민, 청소년 상호방문(홈스테이 등) 및 이해증진

■ 세계유산 보호 국제청소년 교류

가. 유네스코 관련 국제청소년자원활동

- WHC 참여
- 한국의 제주도 등 전 세계적으로 10여개 세계유산 지역에서 매년 국제 청소년들이 중단기 체류하면서 유산의 보호활동 및 지역봉사활동을 병행
- 항공비, 체류비 등 기초비용은 봉사자 자기 부담
- 10-30여일의 사업을 지역 단체, 시민과 함께 추진

나. Canadian Alliance for Development Initiative and Projects(밴쿠버)
국제자원활동

1) 이탈리아 베로나 워크 캠프

- 2-3개월 3가지 파견사업 8년간 지속
- 캐나다 학생 2-5명
- 매주 30시간 봉사(벌초, 청소 등)

2) 인도 함피 워크 캠프

- 2주간 학교봉사 및 유산보호 활동
- 18세 이상의 캐나다 국적 청소년



NOTE

NOTE

<http://www.gurimh.or.kr>

 **구 리 문 화 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36 / T. 031)557-6383~4
F. 031)553-3993 / E-mail : gurimh@empal.com